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2월 7일) 2022년 3월 9일 수요일

포교 · 복지 등 '일상으로' 불교, '리오프닝' 잰걸음

〈Re-opening〉

코로나 딛고 산문 여는 불교계 눈길

신성민 · 노덕현 · 임은호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리오프닝(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에 따라 불교계도 이른바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다. 햇수로 3년째 문을 걸어잠그고 비대면 방식에 의존했던 불교계가 조심스럽게 산문을 열고 있다.

'대면' 포교로 대전환 시도

불교계 변화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전법과 포교 분야에서의 대면 전환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미타사까지 '전법ON 포교원력 결집 걷기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순례에는 300여 포교사들이 함께해 도심 거리를 걸으며 근래 보기 힘든 불자들의 모습을 연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엔데믹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7월 포교신행단체들이 한데 모이는 결집대회에 이어 연말경 대규모 불자들이 모이는 포교결집대회도 모색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3월 중순 불자네트워크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에 따라 전국교구본사를 순회, 교구신도회 대면활동을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포교사단도 3월 6일 제22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4월 포교사 재교육 강좌 등 코로나 기간 중단되거나 연기했던 활동을 재개할 것을 알렸다.

불자들이 사찰에서 교육을 받거나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사찰 불교대학도 3월부터 각종 강좌를 개설해 다시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신행활동을 불교대학 신설로 돌파하려는 사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선운사 불교대학, 불국사 연화사불교대학, 수원 보현선원 보현불교대학, 마곡사 불교대학, 제주 법화사 불교상담대학이 최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신규인가를 받았다.

연등회 · 템플 테마 '일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표어로 내세우고, 대면 행사를 계획 중이다.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4월 30일 오후 4시30분 동국대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어울림마당이 진행되며,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도 흥인지문부터 종로, 조계사로 이어지는 행렬이 재현된다. 이에 따라 연희단의 흥겨운 율동과 장엄한 행렬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등행렬 관람석과 회향한마당은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도 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익 템플스테이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 홍보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발열 체크와 개인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 수칙만을 지키며 템플스테이는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 관련 기념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면' 복지서비스도 확대

복지관들도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 전개를 시작하고 있다. 중단됐던 각종 대면 교육프로그램과 봉사단,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들의 재가동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다는 계획이다. 카페와 베이커리 등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사업들이 정상화되면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사회활동 기회 제공은 물론 일자리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결집대회 연내 예정
불교대학 대면강좌 봇물

연등회, 코로나 이전 복귀
대면 복지서비스도 강화

대면 · 비대면 복합적 활용
기본방역 준수 등 목소리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2022년은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복합활용, 추가 변이 민첩대응 필요

이 같은 불교계의 대면 전환은 일상회복 기대감에 따른 사회적 움직임과 함께 3년간 진행해 온 비대면 방식의 종교활동이 조직운영 등에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찬영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신도조직 네트워크 등에서는 비대면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대면활동 진작과 함께 뉴미디어 활용 등 시대흐름에 맞게 불교계가 3년간 개발해온 비대면 방식도 계속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 전환 후 갑작스런 변이 창궐에 대비한 불교계 대응태세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재환 병원불자연합회 회장은 "대면 활동 증대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기본 방역을 현장에서 면밀히 챙기고, 추가 변이 발생시 종단의 신속한 지시 하달로 일사분란한 방역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o War! Please!"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3월 3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홍법사 사부대중은 'No War Please'의 메시지를 담은 촛불을 점등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했다.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불교계 한목소리 '호소'

조계종 등 각 종단 성명 발표해
자승 스님, 평화법회 제언 '눈길'
"명분 없는 전쟁…총 · 칼 거둬야"

"우크라이나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함께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종단들은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초하루를 맞아 평화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2일 입장문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상대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는 결국 자신을 향하는 총칼이 될 것으로 잔혹한 총칼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속히 전쟁이 종식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조계종은 이날 전국 사찰에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발원문'을 시달하고 "중생의 아픔이 곧 부처님의 아픔이듯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모든 인류가 희망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진정한 생명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3일 봉은사에서 열린 초하루 법회에서도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특별 법문했다. 원행 스님은 호국불교 정신에서 발현된 나라와 세계평화 의지를 역설하며 불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기원하며 촛불을 밝혔다. 홍법사는 3월 3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No War Please'라는 메시지를 담은 촛불을 점등하며 홍법사 사부대중은 평화를 기원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불자와 국민들이 기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 종단 · 단체들의 성명 발표도 이어졌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2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쟁 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 온 인류가 평화의 소중함을 나누는 세계일화의 인연공덕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계종교구본사주자협의회는 3월 2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봄날이 깃들길 기원했다. 이들은 "불제자들은 전쟁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길 정성 들여 기도해야 한다"면서 "인류의 공존공생을 염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실천행동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 종단 30곳이 소속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성명을 내 우크라이나 침략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 평화를 사랑하는 모두 하나 돼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UN에게 전쟁종식을 위한 평화적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 이들은 "약소국도 주권을 행사하며 함께 존립할 수 있도록 공생하는 국제사회를 위해 모든 국가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태고종과 관음종도 성명서에서 "21세기 현대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온 인류와 불교도의 이름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당장 멈춰줄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앞서 2월 28일에는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성명을 내고 "전쟁과 총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복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KCRP는 평화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하면서 "정의로움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의사는 평화를 위한 인류의 위대한 연대"라고 밝혔다.

노덕현 · 임은호 기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취지문

– 전국적인 포교조직을 설립하여 새로운 여성포교의 장을 열겠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은 가정, 교단, 사회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토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종단을 대표하는 여성 포교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평등의식과 인권의식이 크게 고양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역시 종단과 사찰, 단체 등에서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단의 제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을 대변하고 종단 위상에 걸맞게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종단은 사부대중 공동체로서 출가 대중과 재가 대중의 상호 존중과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포교원이 설립한 여성조직의 경우 몇몇 이사진들의 주도로 활동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종단의 지도 방침을 거부하며 포교단체에서의 해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역시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여성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전법의 현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단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 불자가 주축이 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대표 여성단체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더 큰 포부와 조직적 대안을 가지고 지난 20년의 역사를 품어 안으며 아픔을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 종단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끌어안고 가고자 합니다. 지역별 직능별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로 먼저 1080인의 발기인을 모시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오는 4월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포교원은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대표적인 포교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각계각층의 여성불자를 조직하여 회원들이 자유롭고 열린 태도로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교계 여성불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속에서 정부 및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가며 활발한 대사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모든 고난을 멀리 벗어나게 하며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나게 한다."(종단본 불교성전)고 하셨습니다. 종단 곳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와 1080 발기인에 적극 수희동참해 주길 당부합니다.

불기2566(2022)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1080설립발기인을 모십니다

◆**모집기한** : 불기2566(2022)년 2월 21일(월) ~ 3월 18일(금)

◆**동참조건** :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하는 전국의 여성불자 (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

◆**동참방법** :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1080발기인 참여 동의서 다운로드 (http://www.buddhism.or.kr) 작성 후 문자, SNS,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3월18일(금)까지 전송. (모바일 참여동의서 제출 가능)

※보내주실 곳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화 02-2011-1893 팩스 02-720-7065
이메일 hy@buddhism.or.kr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팀 전화 02-2011-1893